

금융당국, 특사경 수사범위 넓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조사사건, 신속히 수사전환 가능
증선위 고발·檢이첩절차 일부 생략
수사심의위 참여 인원 구성 조정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사건을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맡길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나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진행한 사건 전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정비된다.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일부 바뀐다. 위원 수는 기존처럼 5명을 유지하지만, 참여 인원의 구성을 조정해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인다는 취지다.

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한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부서 부처장 가운데 금감원장이 지정한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추가로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안건 역시 위원 2명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회의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당일 의결하도록 했

다. 다만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와 관련된 일부 조항도 정비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조사 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했다. 조사와 수사를 분리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코스닥 바이오 영향력 확대 기술이전 투자 전략 ‘주목’

글로벌 제약사 특허 만료 이어져
미래에셋 ‘액티브 ETF’ 오늘 상장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만료와 기술이전 확대 흐름 속에서 국내 바이오의 성장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6일 웹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국내 바이오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술이전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핵심종으로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 전략도 공개됐다. 해당 ETF는 17일 신규 상장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시장과 밀접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코스닥150 지수에서 바이오 비중도 약 40%로 단일 산업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정책자금 유입 역시 바이오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 제약사 머크(Merck)의 면역억제제 ‘키트루다(Keytruda)’는 암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또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가 주도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역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제약 산업 구조 변화도 바이오 기회를 확대하는 주목할 만한 요소다.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부 기술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년 키트루다 특허 만료가 예정되면서 기술이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임매니저는 바이오 투자에서 임상 데이터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같은 항체 혹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성공 여부 중간 결과, 경쟁 약물 대비 확실한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는 기술이전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핵심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액티브 전략 상품이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임상 모멘텀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종목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송매니저는 “다른 ETF와 다르게 바이오핵심종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바이오핵심종 접근성이 높다”며 “바이오는 임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과감한 매도 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바이오핵심종이 코스닥에 포진돼 있어 코스닥 비중이 약 80~8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핵심종 비중은 70~80% 수준으로 타 ETF 대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기업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구조여서 투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티브 ETF 전략이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수신 잔고 1조 돌파

올해 신규 모험자본 6000억 공급

키움증권 발행어음 수신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키움 발행어음’ 출시 이후 석달 만에 이룬 성과다. 올해 신규 모험자본도 6000억원을 공급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수신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고, 12월 19일 첫 발행어음 상품 ‘키움 발행어음’을 선보였다.

키움 발행어음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형과 만기가 정해진 약정형으로 나눠 출시했다. 수시형은 16일 기준 세전 금리 연 2.5%다. 약정형은 세전 연 2.5%~3.3%다. 약정형은 7~30일형부터 1년형까지 총 여섯 가지며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키움 발행어음은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 목표액인 300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특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했으며, 약 3개월 만에 발행어음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 2조원 수신을 목표로

발행어음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 모험자본도 6000억원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질 분야에서 활약하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를 강화한다. 이들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지분(Equity) 성격의 투자를 20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벤처모펀드에 자금을 공급한다. 키움증권은 민간 벤처모펀드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 펀드를 뜻한다.

VC들의 세컨더리 펀드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VC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세컨더리마켓을 통한 우량 비상장주식 투자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요 대학 기술지주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che@

한양증권 창사이래 첫 RP 출시

28일물 연 3.5% 금리

리테일 강화에 나선 한양증권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출시한다.

한양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 수요를 반영한 이번 특판 RP의 판매가 이날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28일 만기 약정으로 연 3.5% (세전)의 약정 금리를 제공한다. 투자 한도는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최대 10억원이며 총 판매 한도는 500억원으로 한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포함한 전 고객이며, 한양증권 4개 리테일 지점(여의도PWM센터·송파RM센터·안산프리미어센터·인천프리미어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한양증권은 향후 비대면 채널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희 한양증권 멀티영업본부장은 “이번 특판 RP는 고객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에 맞춰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 라인업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ChatGPT로 생성한 ‘바이오 섹터로 몰리는 투자 상황’.

대신증권, 美 장기국채 상품 라인업 확대

30년물·2050년 만기 초장기채 포함

구조다.

대신증권이 미국 장기국채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 공략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미국 국채 투자 상품을 환오픈형·환헤지형·타겟수익형 등 세 가지 구조로 세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오픈형은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환헤지형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채권 금리 수익에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타겟수익형은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자동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 대상은 미국 장기 국채다. 이번 라인업에는 30년 만기 장기채와 2050년 5월 만기 미국 국채 등 초장기채가 포함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연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3%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장기 국채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경 대신증권 고객자산부문 상무는 “미국 장기 국채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 대안 투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